

법사 파견 등 범종단 지원해야

흔들리는 직장법회



- ① 직장법회 현주소
- ② 침체요인 진단
- ③ 활성화 방안

5명이 등록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 불교방송 일일법회 테잎을 들으며 불교공부를 하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

조화제회장은 "8년에 금융결제원 전신인 은행지로관리소에 불자회를 창립하여 운영했으나 중단됐다. 지난해 재창립했다"며 "불자회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회원정원이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다. 회장단에 의해서 법회 운영비를 해결하

이들에게 열정을 쏟는 것과 더비된다.

법사 지원은 불자회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지도법사는 모임의 중심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불자회는 인연 닿는 스님을 한시적인 지도법사로 모시고 있다. 차제에 각 종단에서 법사를 위촉하는 제도를 실시, 법사에게 종단적 권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신행은 심화시킬 수 있는 단계적인 실행프로그램의 지원도 절실하다.



▷정부기관에 불자회 창립이 시급하다. 사진은 4월 28일 창립한 김사원 불자회 법회 장면.

복돋아주었다. 현재 개신교는 직장 선교협회를 조직하는데 이어 직장선교회관 건립기금을 모으고 있으며 21세기를 향한 선교정책개발과 선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연계도 중요한 활성화 방안이다. 인근지역 사찰과 자매결연을 맺어 직장법회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서울 서대문구청불자회는 흥은동 백련사와 상부상조하며 지내고 있다. 백련사에서 법회공간과 법사를 제공함으로써 신심증상은 물론 체계적인 교리 학습이 가능하다. 서대문구청불자회는 초파일 등 백련사 주요행사에 참가하고 자원봉사를 실시한다. 매년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공동개최하여 지역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직장법회는 전문직을 포함하여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불자들이 모여있는 만큼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인 활용한다면 불교발전에도 중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세무사불자회 송호승회장은 "세무사불자들이 교계에서 무료봉사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종단이나 사찰에서 불합리한 세금문제도 상담해줄 경우 불교의 호의에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들을 활용하여 대책위를 구성, 실질적인 업무로 추진한다면 더욱 사회를 주도하는 대안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직장불자들도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자부심이 생기고 해당불자회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단체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직능 법회 활성화에 각 종단과 교계에서 많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교육프로그램·지도자 연수 필요 회비 자동납부 등 재정안정 절실 인근사찰 연계 신심 증장에 도움

는 직장법회는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을 노출시킨다. 모임 때마다 얼마씩 거출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입회비와 월회비를 빠짐없이 매월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단체통장에 입금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세무사 불자회의 경우 회비자동입금제도를 채택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

둘째는 각 종단의 법사 지원이다. 지금까지 어느 종단에서도 직장·직능법회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불교계는 타종교와 달리 신도육성에 미진하다. 대학불교연합회나 직장법회 등 불교에 입문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초심자들의 힘든 생활이 시작된다. 타종교들이

또 직장법회지도자 세미나 및 수련회, 지역합동법회 등을 열어 단체간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장을 펼쳐주는 것도 종단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95년 조계종포교원에서 전국 직장·직능법회 대표자수련회를 개최했으나, 이후 지속되지 못했다. 전국 단위가 어렵다면 지역단위 또는 유사 직종간의 모임을 열어 꾸준한 교류를 갖는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신교계는 지역적으로 돌아가며 경제난극복예배와 계층별 선교대회를 열고 있다. 7월 11일 종교교회에서 제10회 직장선교대회를 열고 우수 신우회원과 단체에 표창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우수단체 2곳과 신우회원 2명을 표창해 사기를



한국불교언론인회 현판식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한국방송개발원 사무처장)는 21일 오후 6시 불교방송 다보빌딩 2층 사무실 개소 및 현판식을 가졌다. 신광식회장은 "불법으로 현실과정을 풀어나고, 교단외의 불교포교에 앞장서는 언론인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스님, 조계종기획실장 제원스님, 진흥원 서문각이사장, 불교방송 성나승사장, 현대불교신문 김광삼사장, 우리는선우 남지식 공동대표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의정부 호암사 대웅전 착공식

국난극복기도도량 의정부 호암사(주지 혜우)는 21일 탄성스님(前조계종 총무원장) 혜승스님(의정부 사암련회장) 효종스님(종암승가대 동문회장) 의정부시 김기영시장을 비롯하여 신남10여명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및 요사채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호암사 대웅전 및 요사채는 총면적 90평으로 2층에 전통양식의 법당 35평과 1층 요사채 55평이며 99년 7월 완공예정이다.



화계사 무료 노인 점심공양

서울 화계사(주지 성광)는 21일 도봉소방서(서장 환승철)가 주최한 '사랑의 119봉사 활동'에 후원단체로 참가, 관내 노인(백여명)에게 무료로 점심(국수)공양을 베풀었다. 도봉소방서가 구급구조배차운용 일환으로 관내 65세이상 노인들을 초청해 실시한 이날 행사는 무료진료(한의사협회 후원), 무료이·미용봉사(이미용협회 후원), 인명구조사범 훈련 및 첨단장비관람(도봉소방서) 등도 진행됐다.



도술사 호국영령 천도 대법회

강원 약구 제1사단 군법당 도술사(주지법사 정연태)는 15일 민통선내 두타연 위령비 앞에서 '호국영령천도대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법회총 서울 광복부(주지 광복) 후원으로 6·25 격전지 현장에서 봉행된 이날 법회는 1부 위령재와 2부 영산재 등이 진행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1만원 투자하면 불자기업 살아납니다

부도위기 대응소방 5억모금 나서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94년 회사 설립 이래 매년 1백% 성장을 거듭해온 벤처 불자기업 대응소방(대표 이남재)이 불자들에게 투자를 호소했다.

투자모금액은 5억원이며 투자한도는 1인당 1만원이상 1백만원이하로 20일부터 신청을 받아 차용증과 내용증명을 보내줄 방침이다. (02-215-0723) 투자금액은 1년 뒤 120%로 돌려준다.

대응소방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매출액 40억원의 절반인 2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나 주거래

선인 설비업체의 연쇄부도로 3/4분기 부도금액 3억원을 미런치 못해 흑자부도 위기에 놓였다.(본지 5월26일자 참조) 특히 부도액의 40%가량을 자체자금으로 변제해 왔으나 현재는 담보여력 부족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신규대출도 더 이상 불가능하고 미수금 회수도 시간이 걸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세계최일류의 소방제품 메이커를 목표로 뛰고 있는 대응소방은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불자기업으로 올해부터 소방제품 수출도 시작하여 3만달러를 수출했으며,



▷부도위기에 있는 대응소방이 불자들의 투자를 호소했다. 사진은 대응소방 사옥 전경.

20만달러 신용장이 곧 내도예정이며 30만달러의 추가상담이 진행중이기도 하다.

이남재 사장은 "불자들의 투자금이 어음결제 및 생산기반 확충과 수출제품 개발에 쓰여지며 사

유액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하루빨리 일시적인 부도의 위기를 극복하여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호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전통문화 보호육성"

교불련 부산지회 창립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부산지회(회장 양원식)는 18일 밤어사 보제루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부산지역 교사불자들의 힘을 결집했다.

밤어사 주지 성오스님, 임원숙 전국교사불자회 회장 등 교사 3백여명이 동참한 창립법회에서 양원식회장을 추대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교사들은 앞으로의 활동의 지침이 될 실천강령을 통해 청소년 포교활동, 전통문화 보호육성, 봉사활동 등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양원식 회장은 "우리나라 불교발전의 밑거름이 될 청소년 불교증진을 위해 교사들의 힘을 모으자고 청소년들에게 우리전통문화의 맥인 불교문화를 심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기자 (mhcheon@buddhapia.com)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鬼)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은 잘하여 도(道)를 깨닫는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오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다스리는(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명장수를 얻으려면 필히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 스님이 40여년간은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염(黑)과 감시초외 10여종의 첨가물【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뺠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불로화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신에 사는 사람의 신선(神仙)의 주식(主食)은 시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늘러온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나.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었으므로 불을 생(生)하기(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의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木)의 나무의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시절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얻는 여래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을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지 소나무염장주(梁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장(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배편·솔미다·송화기루·송진·송근백파·송목파·송이버섯·백령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땅어린 조선평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 당귀·감초·표고버섯·홍삼령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가지 않은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 먹어도 배민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의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이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활력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염연구회에서 품질평가에서 적합관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 [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 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의회혜택을 할 예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원액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 053)628-9145 / 053)655-2227 /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